

# François Perrodin, Kyung-Hwa Noh\_Vibrating Object

Aug 9 - Sep 8, 2012



Installation view\_François Perrodin : Wall Objects



Installation view\_Kyung-hwa Noh : Lumiere Series

This exhibition, titled *Vibrating Object*, presents the works of François Perrodin and Noh Kyung-hwa works that sway delicately like mobiles. One strand of contemporary art today emphasizes audienc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Both artists share a common focus on the viewer's perceptual process as they move through space. Viewers engage in an active process of interpretation as they move within the exhibition space, offering their own unique perspectives on the works. This process involves constant intersections and traversals of the senses, producing a synesthetic resonance. It becomes a way of experiencing art that may even return the viewer to a primal state of sensory awareness.

What is noteworthy when appreciating the geometric relief wall object by artist François Perrodin is how the viewer creates and forms a relationship with the work within the exhibition space. This means that the range of colors and the visual scope within the space are sometimes newly created according to the viewer's movement within the exhibition.

His works are not fixed but perceived fluidly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active viewer, so they are understood in various ways, not from a fixed point of view but from a flexible moving perspective. In other words, he suggests that the viewer freely engages with the 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forming a new algorithmic relationship with the works and gradually experiencing a cognitive process in which the works are understood.

Artist Noh Kyung-hwa presents a media art paradigm regarding temporality through the *Lumiere Series*. The work reacts by emitting and disappearing light at the time and point desired by the viewer, bringing about an enjoyable play, like a crack in time. Moreover, in the time of the artist's media images, the repetition, editing, and multiple structures of time which are impossible in the sequential, one-time order of time become possible. Only at the moment when the sequential time paradigm is overturned and transformed can we capture the essence of time and align with its essence.

The visual composition, based on the theme of light, deliberately transforms time. The perspective is not fixed within one object, and two scenes exist simultaneously, with two moments coexisting within the image space. This virtual reality and media art surface express the four-dimensional time image as an illusion on three-dimensional material. In the *Lumiere Series*, it allows the viewer to experience two states of visible existence.

Depending on the viewer's movement, full light changes to dim light or the opposite situation is produced. It is the movement of time and confirms the coexistence of two states. The possibility and re-action of the viewer's actions bring about changes in the state of the lenticular image, and the viewer can freely interact with the surface of the work within the repeated linear time.

## 패로딘 & 노경화\_진동하는 오브제

Aug 9 - Sep 8, 2012



Installation view\_François Perrodin : Wall Objects



Installation view\_Kyung-hwa Noh : Lumiere Series

이번 전시는 작품이 마치 섬세한 모빌처럼 진동하는 오브제를 주제로 하여 프랑수아 패로딘, 노경화 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현대미술의 한 단면은 관람자의 참여와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두 작가의 작품론은 관람자가 공간의 이동 시점에서 바라보는 작품의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관람자는 전시공간에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끊임없이 다양한 감각의 교차와 횡단이 공감각적 울림을 빚어 내는 예술체험의 방식이자 관람자를 원초적인 감각의 주체로 환원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수아 패로딘 작가의 기하학 릴리이프인 벽 오브제를 감상하는데 주목할 점은 어떻게 관람자가 전시 공간 안에서 작품과의 관계를 창조하며 형성해 가는 가이다. 그것은 전시공간의 관람자 동선에 따라서 때때로 공간 안에서의 칼라의 범위와 시각의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작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람자의 동선대로 유동적으로 인지되므로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유연한 이동 시점으로 다양하게 파악된다. 즉 전시공간 안에서 관람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작품과의 알고리즘 관계를 형성하고 서서히 작품이 이해되어가는, 인지과정을 경험하도록 제안한다.

노경화 작가는 시간성에 관한 미디어 아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작품은 관람자가 원하는 시간과 시점에서 빛이 발산하고 소멸하기도 하면서 반응하고 그것은 시간의 균열처럼 즐거운 유희를 가져온다 그리고 순차성과 일회성, 시간의 질서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시간의 반복, 편집, 복수구조가 작가의 미디어 이미지의 시간에서는 가능하다. 이처럼 순차적인 시간의 패러다임이 전복되고 변형을 겪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그 본질과 마주한다.

빛을 주제로한 시각적 구도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변형하는데 하나의 오브제 안에서 시각이 고정되지 않으며, 이미지 공간 안에 두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두 순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미디어 아트 표면은 4 차원인 시간 이미지를 3 차원 재료 위에 환영으로 표현된다.

뤼미에르 시리즈 안에서 그것은 가시존재의 두 가지 상태를 관람자가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득한 빛이 약한 빛으로 바뀌거나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그것은 시간의 움직임이고 두 상태의 공존 상태를 확실히 한다. 관람자 행동의 가능성과 재행동은 랜티컬러 이미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반복되는 선형적인 시간 안에서 관람자는 자유롭게 작품 표면의 활성화를 취할 수 있다.